나주시, 에너지정책자문위 출범

에너지수도 비전 정책 개발 산학연관 전문가 대거 참여

나주시는 지난 2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3기 에너지정책자문위를 열어 올해 역점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나주시 제공〉

나주시는 에너지수도 비전 실현을 위한 정책자문기구인 '제3기 에너지정책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를 구성, 출범했다.

24일 나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2일 대회의실에서 제3기 자문위 회의를 열어 에너지수도 4대 분야 정책 주요 성과와 올해 역점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강인규 시장을 비롯해 문채주 에너지밸리산학융합원장, 임철원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장 등 에너지 산·학·연 기관장들이 대거 참여했다.

에너지분야 산·학·연·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는 에너지수도 비전에 기반한 정책 개발 및 자문을 담당한다.

자문위는 특히 나주시의 국가혁신 융복합단지,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 강소연구개발특구 등 4대 특구 지정에 힘쓰는 등 에너지수도 비전의 핵심인 에너지밸리 활성화에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하고 있다.

나주시는 앞서 지난 2018년 에너지밸리·에너지시티·에너지교육·에너지복지 4대 분야 12대 전략, 38개 사업에 2조258억원을 투입하는 '대한민국 에너지수도 나주' 비전을 선포했다.

오는 2025년까지 700개 기업유치, 일자리 1만개 창출, 에너지자립율 25% 달성, 전기차 3000대 보급, 글로벌 연구대학(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과 산학융합대학 각각 1개소 유치, 에너지 자립주택 5000가구 건립 등을 목표로 삼았다.

올해는 비전 선포 3년차로 그동안 기업유치 383개, 일자리 창출 3991명, 전기차 보급 1055대, 전문인력 양성 1269명 등 에너지수도 기반을 구축하는 성과를 냈다.

강 시장은 "제3기 자문위가 대한민국 에너지수도 나주 조성을 위한 정책 컨트롤타워이자 에너지밸리 활성화를 위한 중추적인 역할과 기능을 할 것"이라며 "올해는 비전 3년차로 그동안의 성과를 폭넓게 확산시키고 강소연구개발특구 운영과 관련 세부사업에 대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on@kwangju.co.kr

품질·맛 좋은 강진산 한라봉 '탐진향' 완판됐다

올 겨울 생산 물량 모두 소화

이승옥 강진군수가 '탐진향' 재배농가를 찾아 농업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강진군 제공〉

강진산 한라봉인 '탐진향'이 소비자 호응에 힘입어 완판됐다.

강진군은 지난 겨울부터 수확한 아열대과수 만감류 '탐진향'이 소비자들의 사랑으로 올해 물량을 모두 소화했다고 24일 밝혔다.

탐진향은 큰감귤류 재배농가를 위해 강진군이 자체 개발한 브랜드로 기존에 알려진 '한라봉', '레드향', '천혜향', '황금향' 등과 같은 품종이다.

일반 감귤에 비해 늦게 수확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기존의 명칭들은 제주도 감귤협회 등에서 붙인 브랜드로 타지역 농민이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강진군과 재배 농민들이 강진 만감류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기로 뜻을 모아 지난해 강진군의 옛 지명을 차용한 '탐진향'이라는 브랜드를 완성했다.

강진군은 온화한 기후를 활용해 전략적으로 아열대과수를 육성하고 있다.

특히 겨울 난방비가 적게 들고 노동력 투입이 적으며, 설 명절 전에 수확할 수 있는 만감류 재배에 주목했다. 강진에서는 9농가가 2ha에서 탐진향을 재배하고 있다.

탐진향은 소비자들로부터 당도가 높고 맛있다는 호평을 받으며 주문이 쇄도해 설 명절 전 판매가 완료됐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장성군 '전입 장려금' 대상은 늘리고 불편은 개선

장성군이 인구 유입을 늘리기 위해 전입 장려금 제도를 대폭 개선해 시행하고 있다.

장성군은 기존 '전입자 수 제한' 규정을 없애고 모든 전입자 가족에 대해 1인당 지역화폐인 장성사랑상품권 10만원씩을 전입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전까지는 가구 당 최대 30만원으로 상한액을 제한했다.

전입 장려금 신청 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종전에는 전입 후 관내 거주 6개월 이상 된 주민에게만 신청 자격을 줬지만 올해부터는 전입 즉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여기에 지급 시기도 단축됐다. 올해부터는 대기기간 없이 전입신고를 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당일 바로 전입 장려금을 지급한다.

장성군은 도시민 귀농귀촌 인구 유치와 함께 결혼축하금, 국적취득 축하금, 전입유공기관 장려금 등 다양한 인구 늘리기 정책을 펼치고 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나눔 세상 온정의 손길

함평 나산교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후원금 300만원

함평군 나산면에 소재한 나산교회는 최근 지역의 취약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나산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후원금 300만원을 기탁했다. 〈사진〉

후원금은 혼자 사는 노인과 차상위 계층을 위한 사랑의 밑반찬 나눔 사업 등에 쓰일 예정이다.

이번 후원금은 지난해 나산교회 교인들이 헌금한 금액 중 사회봉사를 위해 별도로 모금한 것이다.

나산교회는 지난해에도 나산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5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김태균 목사는 "나산면의 발전을 위해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고 어려운 지역주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이지만 소중한 나눔의 가치가 지속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함평=황운학 기자 hwang@kwangju.co.kr

지엠메디텍㈜, 담양군에 이웃돕기성금 200만원 기탁

담양일반산단에 소재한 지엠메디텍㈜이 최근 이웃돕기 성금 200만원을 담양군에 기탁했다. 〈사진〉

기탁된 성금은 담양군복지재단과 연계해 도움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어려운 이웃들에 사용될 예정이다.

지엠메디텍은 의료기구를 생산해 전국 병원에 납품하고 있는 담양 기업이다. 지난 2019년에도 200만원을 기탁했으며, 인재 양성을 위해 매월 장학금을 기탁하는 등 지역에 끊임없는 사랑을 전하고 있다.

/담양=노영찬 기자 nyc@kwangju.co.kr

새얼굴

"신속한 재난대응 구축 지역민 안전 지킬 것"

최인석 장성소방서장

"재난 현장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등 신속한 재난대응 체계를 구축해 지역민들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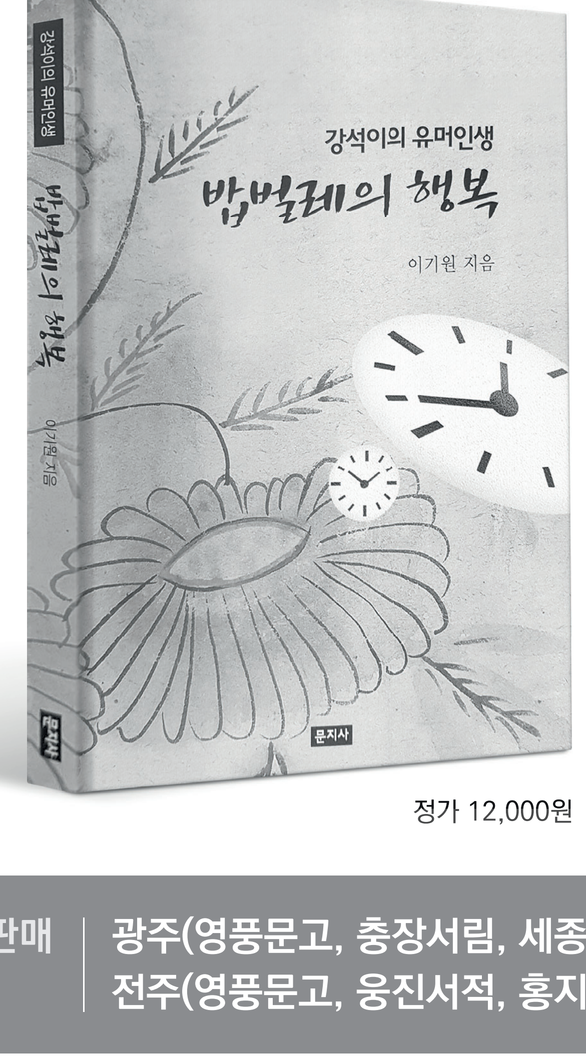
지난 22일 취임한 최인석 제3대 장성소방서장은 "지역민 안전 확보와 직원 간 소통·이해를 통한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신임 서장은 소방간부후보 12기로 지난 2003년 소방에 입문해 전북소방본부, 소방청 소방산업과, 중앙소방학교 안재개발과 등에서 근무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전라도 촌놈 이기원이 쓴

'밥벌레의 행복'



정가 12,000원

유머와 에세이의 만남 강석이의 유머인생

작은 책상과 TV와 노트북, 책꽂이와 장롱이 서로 기대고 있는 서재방인지 골방인지에 쭈그리고 앉아 지나온 발자취를 회상하며 글을 써본다.

이왕이면 재미도 곁들여서 말이다. 이를테면 유머형 에세이다. 별로 특별한 삶을 살아온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는 소중한 인생이라고 자위해본다.

이 책이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분들께 조금이나 위안이 되고 삶의 활력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지은이 이 기 원

서점판매 광주(영풍문고, 충장서림, 세종문고, 초원서점, 나남문고, 글방문고), 순천(중앙서점), 목포(영풍문고) 전주(영풍문고, 웅진서적, 홍지서림, 민중서관), 김제(제일서림), 완주(혁신문고)

인터넷판매 교보문고, 영풍문고 알라딘, 예스24 (배송료 무료)